metro

메트로 2013년 1월 7일 월요일 www.metroseoul.co.kr

화장품 브랜드숍 판매원
60~70% 외국출신 채용
중국어·일본어 등 술술술

치즈 올려 털떡은 떡볶이
소시지 꽂은 퓨전꼬치 등
길거리 간식까지 세계화

외국인이 바꿔 놓은 '명동의 한류'

혹한에 폭설까지 내렸던 지난 설날 오전 오렌민에 서울 명동을 찾은 직장인 양민정(34)씨는 본서 '계를 만난 듯 깜짝 놀랐다. 쇼핑하기에 이른 시간인데도 중국·일본 관광객들이 미끄러운 빙판길을 부지런히 누비고 있었다. 양씨는 "화장품 매장을 갔더니 중국어로 인사하고 패스트푸드 매장에서도 햄버거를 먹는 내내 한국 사람은 찾기 힘들어 마치 해외여행 온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서울의 안방이라 할 명동의 주인이 바뀌는 모습이다. 국내 화장품숍에서 외국인들에 공간을 광고 골목에 늘어선 노점상들은 관광객들의 입맛에 맞춘 간식거리로 세계 맛지도를 그리고 있다.

명동 중앙로를 따라 늘어선 화장품 브랜드숍에선 요즘 한국말을 듣기 힘들다. 판매원들이 외국인으로 물갈이되고 있어서다. 명동에 매장을 5개 이상 운영하고 있는 더페이스샵·네이처리퍼블릭·잇츠스킨 등의 판매원 가운데 일본어나 중국어가 유창한 외국 출신 비율이 평균 60~70%, 많은 곳은 90%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중국인 판매원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더페이스샵을 운영하는 LG생활건강의 김지숙 대리는 "일본인은 구매할 제품을 미리 적어놓고 쇼핑하는 데 비해 중국인은 매장 직원의 상담과 권유를 적극 수용해 대량으로 구입하는 경향을 보여 중국인 채용에 더 신경을 쓴다"고 말했다.

명동 쇼핑의 또 다른 재미인 '길거리 음식'도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춰 무한 진화 중이다.

떡볶이는 치즈를 올려 덮밥처럼 만들었고 큼직한 떡꼬치엔 독일식 소시지를 꽂아 '퓨전 요리'로 변신시켰다. 동남아 시이시어로 소시지를 맛볼 수 있는 '소시지 회오리 감자'는 쇼핑으로 출출해진 관광객들의 배를 채워준다.

이 밖에 일본의 타코야키, 벨기에 와플, 중국식 호떡 등 명동 골목마다 토종 메뉴를 업그레이드한 '세계 음식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다.

명동 밀리오레 앞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정모(48)씨는 "일본인들은 담백한 것을, 중국인들은 짜릿한 양념 순대볶음을 좋아한다"며 "손님 열 명 중 한국 어덟은 외국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명동이 '한류 쇼핑 1번지'로 떠오르자 기업들은 재빠르게 해외 진출 전 테스트 마켓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명동에 국내 최대 규모의 체험 매장을 연 CJ올리브영은 한국 식품과 한류 아이돌의 음반, 기념품을 판매하는 공간을 따로 만들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올해 중국 진출을 앞두고 관광객들의 소비성향을 분석해볼 수 있는 안테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일모직의 '에잇세컨즈' 등 비롯해 이랜드의 '스파오', 신성통상의 '탑텐', 에이타임의 '스파이시칼라' 등 현재 해외 진출했거나 점토 중인 국내 SPA패션브랜드들 또한 외국 관광객들이 사가는 아이템을 눈여겨보며 구매 패턴을 주시하고 있다.

/박지원기자 gie@metroseoul.co.kr

자궁근종환자 절반이 40대

20대 미만 젊은 여성환자도 연평균 10%씩 증가

자궁근종 환자의 절반은 40대지만 젊은 환자 비율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건강보험공단의 2007~2011년 진료 통계에 따르면 자궁 내 양성 종양인 자궁근종 환자 수는 4년 사이 22만9324명에서 28만5544명으로 연평균 5.6% 증가했다.

2011년 기준 연령별 환자 비중은 40대가 47.9%로 절반에 육박했고 이어 50대(26%), 30대(19%) 순이었다. 진료비 측면에서도 40대가 전체 진료비의 50% 이상인 612억원을 썼다.

하지만 진료비 증가율의 경우 20대미만이 20.8%로 1위를 차지했으며 환자 증가율 역시 20대 미만 환자가 2007년 10만명당 2명에서 2011명 3명으로 연평균 10.7%씩 가파르게 늘어났다.

공단 관계자는 "자궁근종 형성 과정이 느린 편이라 40대 이후 이물감 또는 출혈로 증상을 감지한 중년 환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건강검진 활성화로 20대 젊은 여성들의 자궁근종 발병이 높게 집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용희기자 unique@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자>

'짤린 직장인' 62만여명

지난해 이직 경험자 266만여명… 취업자의 11% 달해

지난해 이직을 경험한 사람은 266만여 명으로 실업자 수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이 62만5000명에 달해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통계청의 '2012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평소 취업자 수는 2378만7000명으로 이 중 266만2000명(11.2%)이 이직을 경험했다.

평소 취업자란 1년간 6개월 이상 취업과 구직활동을 한 사람 가운데 3개월 이상 취업 상태에 있었던 사람으로 월간 고용동향의 취업자 개념과는 다르다.

◆30대 이직 경험 26% 최다

이직 사유로는 가족 및 개인 사정이 109만6000명으로 41.2%에 달해 가장 많았다. 뒤이어 근로·작업 여건 불만이 55만1000명(20.7%), 정리해고는 33만9000명(12.7%), 일시적 일 종료는 29만6000명(11.1%), 기타 29만1000명(10.9%), 사업 준비 8만9000명(3.3%)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이직 경험이 70만8000명(26.6%)으로 최다였으며 30세 미만은 25.3%, 40대 21.9%, 50대 15.4%, 60대 이상 10.7% 등이다.

근로·작업 여건 불만은 30세 미만 30.2%, 30대 25.2%, 40대 14.9%, 50대 14.9% 정이다. 경영 악화 정리해고는 30세 미만은 6.2%, 30대 4.9% 40대 15.8%, 50대 18% 등을 차지했다.

/배동호기자 elevon@metroseoul.co.kr

비추 한포기 들고 30분 민지작 농산물값 급등 한국이 한파의 공통으로 농산물이 가격 강세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농산물을 고르고 있다. /뉴시스

서울도 초등학교 통폐합 추진

2015년 신흥·흥일초 합저

얼음절벽 오르는 거미인간 국내 최대 규모인 충북 영동빙벽장에서 6일 산악인들이 깎아지른듯한 얼음절벽을 기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초등학교 통·폐합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과 남부교육지원청은 "2015년 금천구 시흥동의 신흥초등학교와 흥일초등학교를 통합하고 흥일초 자리에는 독산동 한울중학교를 2016년에 옮길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두 학교가 통합되면 초등학교를 통틀어 서울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학교 통·폐합 사례가 된다.

지난 2009년 강남구 일원동 영희초등학교와 대청초등학교도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통·폐합을 추진했으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두 초등학교 거리가 300m에 불과하고 학생 수도 줄어드는 상태"라면서 "지역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용희기자

올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P 낮춰 2.9%

정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감안해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연 2.9%로 1%포인트 낮춘다고 6일 밝혔다.

재단은 "최근 4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3.0%를 고려하면 실질금리는 거의 없는 수준"이라며 "대학(원)생들의 상환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든든학자금 생활비 대출 한도는 학기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돼 연간 최대 300만원의 대출이 허용된다. 또 일반상환 학자금에서 학부생이 연 200만원 한도로 생활비를 융자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마련된다.

21일부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이자율은 연체 3개월 이하일 경우 15%에서 10%로,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17%에서 12%로 낮아진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가능하며 생활비 대출 신청 기한은 5월 27일까지다. 문의 1599-3000 /배동호기자

실내온도 20도 넘으면 300만원 부과

7일부터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7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전국 476개 에너지 다소비 건설에 대한 실내온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계약전력이 100~3000kW인 전기 다소비 건물이나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석유환산톤(TOE) 이상인 시설이다.

특히 출입문을 열어놓은 채 난방과 영업을 동시에 하거나 전력 최대 소비 시간대인 오후 5~7시 네온사인을 사용하는 경우 단속된다.

단 옥외광고물에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에는 1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전력이 3000kW 이상인 사업장(6000여 곳)은 오전·오후 피크타임에 전력 사용량을 전월 대비 3~10%까지 감축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1만9000여 곳의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개인전열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오전 10~12시에 예비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지면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순차적으로 난방을 멈춰야 한다.

/배동호기자 elevon@

눈 나빠도 공군 조종사 된다

라식 수술로 시력 교정될 수 있으면 선발 하기로

눈이 나쁜 사람도 라식 수술로 공군 조종사의 꿈을 이루게 된다.

공군은 2014학년도 공군사관학교 지원자와 내년부터 비행교육에 들어갈 조종 장학생, 학군사관 후보생(ROTC)의 선발 심사 때 라식 수술로 시력이 교정될 수 있는 사람도 합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군은 최근 미국 항공우주의학교 연구에서 라식 수술의 항공의학적 안정성이 확인된 것을 바탕으로 이런 방침을 정하게 됐다.

미 공군은 2007년부터 라식 수술을 허용했지만 현재까지 부작용 때문에 비행할 수 없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사나 조종 장학생, ROTC 지원 이전에 시력교정 수술을 받은 사람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공군 관계자는 "항공우주의학 분야에서 임상 경험이 풍부한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군의관들이 시력교정 수술이 필요한 합격자들을 충분히 관찰하고 정밀 검사한 뒤 수술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광용특기자 unique@

강면 종료로 취득세 다시 2배 오르자 새해 벽두부터 아파트값 쇼크

강남 6000만원 폭락

서울 수도권 아파트 거래 시장은 새알 한파와 취득세 감면 종료로 꽁꽁 얼었다. 취득세 감면 종료는 사실상 취득세가 2배 오른 셈이어서 아파트 가격 하락을 부채질했다.

6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이지오 공급면적 138㎡의 호가는 취득세 감면 영향력이 미비지했던 작년 11월 말 8억 2000만원에서 올해 초 7억6000만원으로 한 달 만에 6000만원(7.3%)이 내렸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공급면적 128㎡는 11월 말 12억 6500만원에서 올해 초 12억으로, 분당신도시 서현동 시범현대 261㎡는 10억2500만원에서 9억8000만원으로 각각 5.1%와 4.4% 떨어졌다.

◆즉시 감면연장 목소리 커져

작년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은 2%에서 1%로, 다주택자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에서 2%로,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인하됐던 취득세가 올해부터 원상 복귀되면서 매수세가 썰물처럼 빠진 것이다.

난생 처음 눈밭 달리는 외국 청소년들 6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크로스컨트리경기장에서 열린 설상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드림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설피(설상 보행용 덧신)를 신고 눈 위를 뒤뚱거리며 달리고 있다. 드림 프로그램은 강원도가 눈과 얼음을 보기 어려운 지역의 외국 청소년을 초청, 동계스포츠와 한국 문화를 체험토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연합뉴스

부동산114는 1월 첫째 주 서울의 아파트 값이 0.02% 하락하는 등 2011년 2월 이후 22개월째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다고 전했다. 한파와 폭설로 거래 시장이 한산한 가운데 서울,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0.02%) ▼신도시(-0.01%) ▼수도권(-0.01) 모두 내렸다는 것.

거래 동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장의 불확실성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득세 감면 연장을 약속했고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를 추진키로 해 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 시지 말고 지켜보자는 관망세를 부추기고 있다.

/김재범기자 kjb@metroseoul.co.kr

한방칼럼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21-중-44185호 (광고)

혈액순환장애는 어혈을 제거

어느날 갑자기,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가쁘다. 손발이 저리고 저리다. 어깨 근육과 뒷목이 뻣뻣하다. 두통이 잦고 어지럼증이 있다. 쉬어도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어혈(혈전, 순환되지 않는 피)을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 중 하나로 본다.

이 어혈로 인해 만성두통이나 현기증, 목, 어깨결림, 손발저림, 수족냉증, 심장질환, 근육마비, 고혈압, 중풍, 동맥경화, 안면마비 등 각종 순환기계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런 질환들은 중년이후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혈관이 노화되어 각종 노폐물이 혈관에 쌓이기 때문이다. 건강의 절적 요소인 어혈을 약물이나 수술요법을 쓰지 않고 몸 밖으로 뽑아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한의학적 방법이 금진옥액 요법이다.

금진옥액요법은 흔히 죽은피를 뺀다고 하는 사혈요법의 일종. 금진옥액이라는 말은 사혈을 하는 부위가 혀 아래의 금진, 옥액이라고 하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붙여졌다. 이는 한의학의 전통에서 어혈을 제거하는 치료법으로 기존의 사혈요법이 소량의 혈액을 제거하는데 그친 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어혈을 제거함으로써 혈액순환 장애로 오는 각종 질병에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금진옥액요법 시술에서는 힘현에서 마치 실타래 같은 것이 나온다. 이것은 몸 안에 있던 섬유소들이 시술한 부위를 뚫어서 나오는 것으로 정상적인 반응이다. 대개 섬유소가 많이 나오고 피가 딱딱할수록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어혈이 많은 상태라 볼 수 있다. 시술할 때 따끔한 정도의 통증만 느끼면 된다. 단 혈액응고 질환 환자는 시술할 수 없다. 어혈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타박상, 골절 등 교통사고나 스트레스, 장시간 눕거나 앉아있어도 생긴다.

허담한 운동, 금연, 금주, 녹황색 야채나 등푸른 생선을 먹는 것이 혈액순환장애 질환 예방에 좋다. 또한 달맞이한의원(www.moonhill.co.kr)의 해독요법은 금진옥액 외에도 간정화치료, 청장요법 등으로 인체 정화를 통해 각종 질병을 다스린다.

가공된 음식의 발달 및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배변습관으로 인해 대장에는 묵은 변이나 숙변이 고여 있게 되어 유해균이 유해한 세균이 생기고 [illegible]

한의학박사 황청구 원장

부패한 가스가 신체에 흡수되어 인체의 면역이 떨어진다. 묵은 변이나 숙변을 제거하여 대장을 정화해주는 청장요법은 인체의 해독에서 중요한 것이다.

또한 간 속에 분포된 담관에는 담즙찌꺼기나 노폐물 등이 있는데 이를 제거하여 간이 대사하고 남은 찌꺼기를 원활히 배출 할 수 있도록 하수구를 청소하듯이 정화해주는 간정화치료를 시행하면 간 기능이 좋아지면서 피로가 없어지고 몸이 가벼워진다.

이 청장요법과 간정화치료는 금진옥액요법과 함께 인체의 독소를 배출시키는 중요한 해독요법이다. 단 대장 및 직장, 간에 질병이 있는 환자는 진료 및 상담 후 시술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작년 영화·영상 61편 촬영… 레디고 부산!

'해운대 연인들' '메이퀸' 등 드라마 제작 크게 늘어

지난 한 해 동안 부산에서 61편의 영화 영상물이 촬영 제작됐다.

6일 부산영상위원회에 따르면 부산 촬영 장편 극영화는 '이웃사람' '연가시' '용의자X' 등 24편, 드라마를 포함한 영상물은 37편으로 모두 61편이 698일간 촬영 제작됐다.

이는 2011년에 60편이 660일 동안 촬영·제작된 것에 비해 작품 수는 1편, 촬영일 수는 38일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부산지역에서 촬영한 영화와 영상들은 해외 작품과 공동 제작이 늘었고, TV 드라마 촬영이 대폭 증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영상위는 설명했다.

부산영상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부산에서 촬영한 도둑들' '이웃사람' '범죄와의 전쟁' '댄싱퀸' 등 흥행작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부산은 영화업계에서 매력적인 영화 촬영지로 손꼽히고 있다.

또 올해 상반기 개봉 예정인 박신양 주연의 '박수건달', 최민식 주연의 '신세계', 정재영 최다니엘 주연의 영화 'AM 11:00' 김우석 감독의 '전설의 주먹' 등도 부산 촬영 영화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엄말 촬영을 시작해 지금까지 부산에서 올로케이션 촬영 중인 유이인·김혜숙 주연의 영화 '깡철이 (감독 안권태)' 지난해 12월 부산의 범원검찰청 앞 대로에서 대규모 차량 추적 장면을 촬영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공유·박희순 주연의 '용의자 (감독 원신연)'는 지금도 촬영 중에 있다.

영화 외에도 '해운대 연인들' (KBS) '옥탑방 왕세자' (SBS) '메이퀸' (MBC) 등 TV 드라마와 CF 영상물 촬영도 37편으로 전년(34편)보다 3편 늘었고, 촬영일 수는 316일(지난해 114일)로 3배가량 늘었다.

올해도 '감염센터 (OCN)' '바이러스 (JTBC)' 등의 드라마가 부산 촬영을 계획하고 있어 드라마 촬영의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의 서일본TV에서 제작하는 드라마 '하카타 멘타이 이야기'가 상반기 부산 촬영을 계획하고 있는 등 해외영상물 촬영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영상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영화진흥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부산시의 적극적인 영화산업 육성 정책, 부산영상위원회의 적극적인 촬영 유치·지원, 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이 상호 상승작용을 해 부산의 영화산업 환경과 인프라가 한층 도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수미기자 ksm@metrobusan.co.kr

부산진구 길거리음식 위생점검

부산진구는 올 연말까지 포장마차 등 길거리 음식에 대한 위생 점검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후문 포장마차 22곳과 서면시장 인근 16곳, 한전 앞 16곳 등 길거리음식점 54곳이다.

구는 올 연말까지 매달 정해진 품목에 따라 어묵 길거리 음식점의 분식, 어패류, 식용유지류 등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 및 부산진구 보건소에 성분 검사 및 식중독균 검사를 의뢰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달 24일 서면로 68번길 포장마차 5곳을 대상으로 김밥, 만두, 전 등 총 15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김밥, 만두 등 모두 4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송도해수욕장 갈매기 조형물

부산 서구는 송도해수욕장 개장 100주년을 맞아 해수욕장 입구에 갈매기가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상징조형물을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사업비 2억원이 투입된 이 조형물은 높이 10m, 폭 2.6m의 규모로 각 파이프와 스테인리스 재질이 사용됐다. 기둥 상부 중앙에는 해양레포츠의 산실로 거듭나고 있는 송도해수욕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각화하기 위해 윈드서핑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본뜬 브론즈 조형물을 세웠다. 또 기둥과 상부에 3색 LED 조명등이 설치, 야간에 색다른 경관을 연출한다.

액운아 물렀거라 6일 부산 동래구 농심호텔 앞 광장에서 열린 '신년 맞이 짚신 걷기'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이 짚신을 신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짚신을 신고 투판을 하는 이 행사는 시민들의 건강을 돕고 한 해 액운까지 쫓는다는 의미도 ... 매년 초에 마련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력위기 대응훈련 10일 개최

부산시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훈련 경계단계가 발령되면 일반 가정이나 상가, 산업계에서 20분간 자율 절전 훈련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훈련 시 일반 가정은 난방기기 등 가전제품 사용을 중지하고 조명을 꺼야 한다.

또 상가는 난방기기 등 가전제품과 자동문 및 에어커튼 사용 중지, 조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사무실도 PC 등 사무기기 전원 차단, 난방기 등 중지, 조명을 소등해야 한다.

훈련은 오전 9시30분 준비단계를 시작으로 10분 간격으로 관심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 훈련을 한 뒤 10시20분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정 시내버스 차고지 조성 본격화 부전~마산 전철 복선화 연말 첫삽

지역 교통시설 착공 잇따른다

부산지역의 주요 교통시설이 올해 잇달아 착공한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부산역과 KTX 부산역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가 3월 착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내 주요 교통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올해 착공하는 시설을 보면 도시철도 1·2호선 이동 편의시설이 3곳 확충되고 최근 민간투자심의를 통과한 부전~마산 전철 복선화 사업도 연말에 착공한다.

또 금정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사업은 4월부터 본격화되며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도 7월 공사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 사상~하단 구간도 지난해 12월 기본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연말께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확장공사도 연말 시작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금정구 회동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연말께 준공되며 구포시장 주변에 추진되는 대중교통 환승센터도 11월 완공될 예정이다.

또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은 올해 5월 시작돼 연말이면 완공된다. /연합뉴스

울산 침몰선 실종자 시신 23일 만에 인양 6일 오전 울산시 남구 울산항 앞바다에서 발견된 시신 1구를 울산해경이 인양하고 있다. 이 시신은 지난달 14일 콘크리트 타설 작업선 침몰 사고 때 실종된 이 시복(48)씨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부산교통공사, 고객모니터 100명 모집

부산교통공사는 오는 18일까지 100명 규모의 고객모니터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고객모니터는 올 한 해 동안 자율적으로 부산도시철도 이용 시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을 살펴서 교통공사 홈페이지 고객모니터 전용 시스템에 등록하는 역할을 한다.

공사는 모니터링 의견들을 취합해 도시철도 서비스 및 운영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역사 환경 등 특정 주제에 대해 분기별로 1차례씩 기획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고객모니터에게는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교통공사는 선발된 고객모니터 전원에게 1만원이 충전된 미니 교통카드 1장씩 지급하고, 활동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에게는 교통공사가 주최하는 영화 시사회 티켓을 우선 제공한다. 또 연말에 우수 모니터 10명을 선정, 1인당 10만원 상당의 포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고객모니터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 부산도시철도 이용 시민 또는 외국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홈페이지(www.humetro.busan.kr)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동래부 동헌 부속건물 복원 사업

동래구는 부산의 역사 바로 세우기와 관광자원 활용을 위해 수안동 동래부 동헌 부속건물인 독경당과 찬주헌 복원 정비사업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사업비 14억3000만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동래부 동헌 왼쪽 상가와 토지 등을 매입, 철거를 완료하고 오는 2월까지 복원 설계를 마치고 올해 안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에 복원될 독경당과 찬주헌은 현재 동래부 동헌 건물의 핵심인 충신당 왼쪽에 있었던 중요한 부속 건물로 동래부사의 휴식 공간과 비장 등이 머물던 일종의 경호실이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중구 신문로 2가 1-141 M2
TEL (02)721-9800 FAX (02)730-1554
발행인·편집인 남 궁 호
사 회 부 감 인 김 형 익
부산지사장 직대 김 명 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658-2100
독 자 센 터 (02)721-9862
2002년 5월 3일 창간 2002.5.30 등록번호 ...

'혁신' 트렉스타에 끌렸다

소비자만족지수 등산화 부문 1위…20일까지 30% 할인행사

아웃도어 브랜드 '트렉스타'가 2012 한국소비자만족지수 등산화 부문 1위를 차지했다.

트렉스타는 세계 최초 경등산화 개발부터 신발끈 대신 와이어가 장착된 다이얼을 돌려 신발을 신고 벗는 코브라 시스템 신발 등 아웃도어 신발의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만들어 한국소비자만족지수 사무국이 주최하는 '2012 소비자가 뽑은 한국소비자만족지수' 등산화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트렉스타는 이번 수상을 기념해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네스핏 기술 신발 전 제품을 3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네스핏 기술은 2만여 명의 발을 3D 스캔 분석한 데이터의 평균치를 잡아 맨발에 가장 가까운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보행 시 발이 받는 압력을 23% 줄이고 근육 피로도를 31% 감소시키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등산화, 트레킹화, 도심 캐주얼화 등 다양한 라인의 신발에 접목돼 국내를 넘어 아시아, 미주, 유럽 등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특히 세계 3대 스포츠용품박람회 중 하나인 ISPO CHINA 대상 수상, 세계적인 아웃도어 전문 저널인 백패커 매거진으로부터 '에디터스 초이스 2011' 수상 등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인정받았다.

트렉스타 관계자는 "한국 아웃도어 브랜드로서 아웃도어의 본고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제품 개발에 대한 노력과 함께 소비자들의 사랑 덕분"이라며 "소비자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이기자 ksm@metrobusan.co.kr

다시 시작하는 '희망버스'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반발해 시작된 '희망버스'가 최근 노동자들의 잇따른 자살을 야기한 상황에 항의하며 1년3개월 만에 다시 부산으로 출발했다.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버스에 오르고 있다. 이들은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의 송전탑 농성장을 방문한 후 부산 영도조선소로 향한다. /연합뉴스

하동~화개 국도공사 등 4건 발주

부산국토관리청은 2019년까지 총 사업비 3616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하동~화개 국도건설공사 등 4건의 신규 사업을 발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사업비 900억원을 투입해 올 4월 착공 예정인 하동~화개(9.30㎞) 국도건설공사는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에서 화개면 탑리까지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고 국도 2호선, 지방도 861호선, 1003호선, 1023호선, 865호선 등과 서로 연결시킨다.

또 창원시 도심부 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귀곡~월암 구간(6.9㎞) 4차로 우회도로 건설공사는 사업비 1909억원을 들여 올 4월 착공될 예정이다. 이 구간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 중인 소사~녹산 석동~소사 공사 구간을 연계한다.

공사 중인 안동~검안 국도건설, 상주~영덕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과 연계한 기지~인동4(4.9㎞) 국도건설공사는 35호선 국도를 신설 및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현재 실시 설계 중인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조성공사의 착공에 앞서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진입도로(2공구 ·1.58㎞) 건설공사를 조기에 추진해 국가산업단지 연결 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하바 키즈 플레이존 마련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은 이달부터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고객을 위해 호텔 본관 지하 2층에 하바 전용 키즈 플레이존을 마련했다.

아이들이 뛰놀 수 있도록 넉넉한 공간에 하바 놀이기구를 다양하게 비치했고, 매일 다른 구성의 하바 놀이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놀이체험 프로그램은 레고 블록 놀이, 키즈 짐, 하바 교구놀이 등으로 구성되어 하루 2회,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한다.

놀이체험 프로그램은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되고, 패키지 고객만 참여 가능하다.

문의(051)749-2111~3

부산서도 성폭행범에 '화학적 거세' 청구

법원이 지난 3일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를 처음 받아들인 가운데 부산에서도 최근 성폭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청구돼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지검 형사3부(박두순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김모(41)씨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5월 30일 오전 1시께 부산 사상구 모 모텔에서 A(13)군을 3차례 성폭행하는 등 10대 남녀 청소년 3명을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朴 당선인 "인수위 최고 가치는 국민 삶"

50일간 공식활동 시작 … "사명감 가져달라"

김용준(왼쪽 둘째) 인수위원장이 6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6일 현판식을 하고 50일간의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인수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별관에서 현판식 및 인수위원 임명장 수여와 당선인-인수위원 상견례 등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박 당선인을 비롯해 김용준 인수위원장, 진영 부위원장 및 인수위원 24명 등이 참석했다.

인수위는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다음달 24일까지 새 대통령 취임과 새 정부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국정 인수인계 활동을 벌인다.

박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급의 경호를 받으며 임명장 수여식 등에 참석해 "임명장은 국민들께서 여러분(인수위원)에게 드린 것"이라며 "국민들 기대에 맞도록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수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인수위가 가져야 할 최고 가치는 국민의 삶이다"며 "50년 지나도 모범적인 인수위였다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조용하고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해 인수가 원활하게 이뤄져 국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도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인수위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위한 조각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첫 총리로 국민대통합·경제통 개혁성 등 박 당선인이 중시한 인선 키워드를 고루 갖춘 가운데 전문성과 인사청문회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리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NCSI
국가고객만족도 2년 연속 1위
NbCI
롯데리아
랏츠버거출시기념 '송중기의 훈훈한 이벤트'
랏츠버거세트 구매시
치즈스틱 증정
2012.12.17 ~ 2013.1.16
Lotz Burger
NEW
제대로 두툼한 맛
궁극의 비프버거 탄생!
랏츠버거
Lotz Burger

'너무 야해서 보도불가'라더니…

다이애나 약혼전 사진속 남친 전 영국총리 증손자로 밝혀져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보도불가' 판정을 받았던 고 다이애나 영국 왕세자비의 과거 사진 속에 등장한 남성이 1920~30년대 영국 총리를 지낸 스탠리 볼드윈의 증손자 예담 러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ABC방송이 영국 도싯에서 사슴농장을 운영하는 러셀과의 4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통해 확인됐다.

러셀은 당시 사진을 더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당신들이 한 장 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그건 수년 전 일이고 지금은 머리가 조금 더 짧기는 하지만 나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BC방송은 왕실 전기작가 앤드루 모튼의 말을 인용해 이들 둘은 단지 친구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한 개인 소장가가 7년 전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 데일리 미러에서 사들인 문제의 이 사진은 오는 17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경매될 예정이다. /미국흥기자

"고노담화 수정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것"

美정부, 아베 정권에 경고

갈수록 우경화되는 일본에 대해 미국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 등 역사 인식을 수정하려는 일본 정부에 대해 미국이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6일 보도했다.

이는 고노 담화 등을 수정할 경우 한국과 중국 등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하면서 오바마 정부가 중시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미 언론도 아베 정권의 과거사 부정 움직임 등 우경화 흐름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스는 3일 사설에서 "범죄를 부정하고 사죄를 희석하려는 어떤 시도도 일본의 잔승 같은 전시 지배로 고통을 겪은 한국과 중국, 필리핀 등의 분노를 촉발할 것이며 특히 아베의 수치스런 충동이 북핵 문제 등의 지역 이슈에서 중요한 협력 관계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은 우경화한 외교 안보와 교육 공약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6일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정권이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정책의 구체화를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헌법 해석 수정,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설치, 역사 인식과 관련한 새로운 총리 담화, 교육 개혁 등을 위한 각각의 전문가 회의를 조만간 설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이 군국주의 색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미국흥기자 kmlee@metroseoul.co.kr

지난해 영화관 총기난사 美도시 이번엔 주택가 인질극 4명 사망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총기 규제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NBC방송은 지난해 영화관 총기 난사 참사가 발생했던 미국 콜로라도주 오로라에서 5일(현지시간) 주택가 인질극이 벌어져 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한 남성이 오로라의 한 주택에서 인질극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 3명이 숨지고 용의자도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경찰 당국자는 "전문가를 동원해 용의자와 전화로 협상을 벌였으나 실패했다"면서 "사망자들과 용의자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미국흥기자

모바일로 포털 검색 2배 증가

PC검색율 15% 감소… 인터넷환경 세대교체

IT 시장의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 IT 업계의 기존 생태계라 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이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

지난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포털사이트 검색은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컴퓨터를 통한 검색은 두자릿수의 감소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인터넷 시장조사기관인 코리안클릭이 증권업체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구글 등 5개 포털의 모바일 사이트 검색 쿼리(질의 횟수)는 지난해 1월 6억6000만 건에서 11월 13억 건으로 95.2%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같은 해 1월에 비해 100% 이상 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PC를 통한 온라인 검색 쿼리는 51억3000만 건(1월)에서 43억6000만 건(11월)으로 15%가량 감소했다.

모바일 검색은 증가하고 PC 검색은 감소하면서 모바일과 PC 간 차이가 과거보다 크게 좁고 있다. 검색 규모는 여전히 PC가 많기는 하지만 모바일 검색의 급증 추세로 볼 때 머지않아 모바일과 PC 간 검색 규모가 역전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포털사이트도 모바일 부문에서 수익을 높이기 위해 고민 중이다.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는 모바일 사이트의 경우 화면이 작아 광고 수단을 개발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포털업체 관계자는 "모바일은 배너광고가 여의치 않아 검색광고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위치기반 앱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LG 올해 사상최대 20조 투자

채용도 1만5000명 유지

LG가 올해 그룹 창립 이후 사상 최대인 20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채용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설과 연구 개발(R&D)에 집중 투자해 글로벌 마켓 리더로 자리잡겠다는 복안이다.

LG는 계열사별로 총 20조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투자 규모인 16조8000억원보다 19.4% 늘어난 수치다. LG그룹의 20조원 투자는 이번이 처음이다.

투자 내역은 ▲시설 부문 14조원 ▲R&D 부문 6조원을 각각 투자한다. 사업부문별로는 ▲전자 부문 13조4000억원 ▲화학 부문 3조5000억원 ▲통신&서비스 부문 3조1000억원 등이다.

전자 부문에서 LG디스플레이가 초고해상도 모바일용 LCD 패널(LTPS) 생산라인 및 미래 제품 준비를 위한 OLED·산화물반도체(Oxide TFT) 생산라인 구축에 투자한다.

LG전자는 미래성장동력 사업의 R&D 및 생산을 담당하게 될 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폰·TV 등 생산라인 강화에 나선다. LG이노텍은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과 터치 윈도,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용 인쇄회로기판(PCB) 등의 생산라인 증설에 투자한다. LG화학은 석유화학 제품인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 고기능성 합성고무(SSBR) 생산라인과 파주 LCD 유리기판·광학필름 등 생산라인 확대에 투자한다.

채용도 줄이지 않기로 했다. LG는 시장선도 사업을 만들어 내는 데 필요한 인재 확보를 위해 올해도 지난해 채용 규모인 1만5000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김민서기자

지회냄비가 단돈 8000원 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겨울철 대표 간식인 군고구마·군옥수수 등을 집에서 간단히 요리할 수 있는 직화냄비(24cm)를 시중 비슷한 제품보다 30% 저렴한 8000원에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아이폰5 국내판매 부진 갤럭시노트2에도 밀려

아이폰5가 국내에서 판매 부진에 빠졌다.

6일 이동통신·IT 업계에 따르면 아이폰5는 지난 4일까지 40만 대가량이 팔렸다. 단일 스마트폰의 판매량으로는 선전한 편이지만 이동통신사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이다.

SK텔레콤과 KT는 지난달 3일 아이폰5의 예약 판매를 실시한 이후 만 하루도 안 돼 예약 구입자 30만명을 돌파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 아이폰5를 구입한 사람은 예약 구입자 수를 크게 넘어서지 못했다. 또 갤럭시노트2의 1일 개통 대수는 1만7000대 안팎인 데 비해 아이폰5는 1만 대 수준이다.

해외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 미국 컨슈머리포트는 아이폰5를 최악의 스마트폰으로 선정했다.

컨슈머리포트가 미국 4대 통신사별 스마트폰 단말기 순위를 조사한 결과 AT&T와 스프린트의 순위에서 옵티머스G·갤럭시S3가 상위권에 올랐고 아이폰5는 3위에 그쳤다. 티모바일 순위에서는 아예 순위에 들지도 못했다. /박선훈기자

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 국회

오늘의 시선
현 이 윤
<칼럼니스트>

미국 상·하 양원 의원들이 세비 인상을 스스로 거부했다고 한다. 최근 상·하원을 통과한 '재정절벽 방지 합의안'에 의원들이 자진해서 급여 인상을 막는 조항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취지에서라고 한다. 세비 인상분이라고 해야 0.5%, 연간 900달러로 우리 돈으로 채 100만원이 안 되지만 그마저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일본 의회도 지난 2006년 의원 연금을 폐지한 데 이어 지난해 세금을 올리기에 앞서 세비를 14% 자진 삭감했다.

우리 국회는 어떤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대선 기간 중에 의원 정수 축소, 세비 30% 삭감, 의원 연금 폐지 등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합의한 의원 연금 폐지, 영리목적 겸직 금지 등 4대 개혁 과제 중 어느 하나도 처리하지 않았다. 올 예산안을 해를 넘겨 늑장 처리한 와중에도 의원 연금 예산 128억원은 통과시켰다. 세비도 한 푼 줄이지 않았다. 특권 포기는 선거용 엄포에 지나지 않았던 셈이다.

기가 찰 일은 또 있다. 바로 의원들의 민원성 '쪽지 예산'이다. 지역구 사업비를 5574억원이나 늘렸다고 한다. 반면 156만여 명에 이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의료비 보조액은 2824억원이나 깎았다. 미래신열선도기술개발, 해외자원개발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써야 할 연구 개발(R&D) 예산도 대폭 줄였다. 여야가 한통속으로 제 잇속을 챙기느라 저소득층 지원과 미래 성장 예산을 뒷전으로 밀어낸 꼴이다. 그리고도 국회 예결위 소속 여야 의원 9명은 남미와 아프리카로 외유성 출장을 떠났다고 한다. 파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정치권은 '하나마나 한' 약속을 다시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정치쇄신을 중단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환골탈태하겠다"고 했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국회 정치쇄신특위를 열어 의원 특권 포기 등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 믿음이 가질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할 일은 제대로 않으면서 잇속 챙기는 데는 이골이 난 의원들의 몰염치한 작태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이제는 재계가 화답할 때다

청론탁설
유 병 필
<언론인>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당초 약속한 대로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은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의 골을 방치하고서는 예기치 않은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중압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 당선인은 연말연시를 민생 행보에 올인하다시피 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경제단체를 방문해 던진 화두다. 지난 연말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 '중소기업 살리기'를 다짐하면서 "이제는 중소기업이 경제의 조연이 아닌 당당한 주연으로 거듭나도록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사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계에서는 지난 연말 대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제민주화를 가장 큰 이슈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재벌개혁이 도마 위에 올라 핵심 이슈가 되었다. 심지어 야당에서는 거의 재벌해체에 가까울 만큼 강도를 높였다.

다행히 대기업 정책에 비교적 온건적인 여당이 승리함에 따라 재계는 어느 정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박 당선인의 중소기업중앙회에 이어 전경련 방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향후의 대기업이 나아가야 할 가이드라인이 거의 제시됐다.

기본적으로 대기업은 이제 국민기업이라는 성격을 규정하고 중소기업과 상생의 길을 걸어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수출과 내수의 쌍끌이', 그리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재편'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대기업에 대한 폐해도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과도한 정리해고는 물론 납품가격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범 등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어떤 모양이든 이제 대기업은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정부 주도형 '타의에 의한 개혁'이냐 아니면 '스스로 성찰하고 자의에 의한 개혁'이냐만 남아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발적인 개혁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기운은 아직 엿보이지 않는다. 적극적인 투자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기본이고 실질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빠른 쇄신 노력을 스스로 해야 한다.

전경련을 중심으로 윤리경영 넘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강령을 만들고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혹여 지금까지 재벌 비판을 단순히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명분 아래 대기업이 반발해왔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시대적 요청에 대기업이 화답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 정서를 싹 틔울 수 있다.

포토프리뷰 | 나눔 실천하는 30일의 약속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가 새해를 맞아 일상에서 나눔을 결심하고 실천하자는 취지의 SNS 캠페인 '나눔 캠페인 30일의 약속(http://30.gni.kr)'을 지난 1일 오픈한 가운데 이 캠페인을 알리는 플래시몹이 5일 서울 인사동 거리에서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주차비 장사' 열올리는 업체들

김하진(35·주부)

지난 주말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있는 한솔어린이 뮤지엄에 갔다. 어린이 교육 전문업체에서 하는 체험형 학습이라는 말을 듣고 5살된 딸과 동행했다. 1시간30여 분의 수업을 마친 딸이 "너무 재미있었다"는 말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주차요금 처리를 논하던 중 담당 직원의 말에 기분이 상했다. 2000원짜리 주차권을 사면 2시간 무료 티켓을 준다는 것이다.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아닌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있는 시설을 이용했음에도 주차비는 따로 내야 한다는 논리였다.

아이에게 점심을 먹이고 간단하게 쇼핑을 한 뒤 무인주차요금 정산기에 주차권을 넣었더니 4시간30분이 지났다는 문구가 떴다. 어쩔 수 없이 산 주차권을 넣었는데도 정산되지 않은 2시간30분 만큼의 주차비가 별도로 나왔다. 식사와 쇼핑에 들어간 돈은 그나마 주차 할인에 포함되지도 않아 1만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주차비로 냈다.

100번 양보해서 2000원짜리 티켓을 산다고 해도 '2시간 무료'는 너무 각박하다. 뮤지엄 입장료가 2만5000원인데 공짜도 아닌 2000원짜리 티켓이 고작 2시간만 유효하다니. 주차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영업장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표기를 하든지, 신문·방송에 광고할 때 '이곳은 주차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와 같은 문구를 넣어줬으면 한다.

요즘 주말이면 한파 탓에 타임스퀘어에 차가 몰려 주차하고 빼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린다. 주차시설 확충에는 관심이 없는 듯한 업체가 주차비 장사에 열을 올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

레미제라블 그리고 공화정 혁명

인문학 산책
김 민 웅
<성공회대 교수>

레미제라블 선풍이 불고 있다. '장발장'이라는 제목의 축약본을 주로 읽었던 이들이 뮤지컬 영화를 보면서 빅토르 위고의 원작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다. '장발장'이라는 인물의 매력도, 이 작품이 프랑스 혁명의 좌절과 성공 사이에서 고뇌하던 시대의 아픔과 갈망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도 인기의 한 몫을 하고 있을 것이다.

원작의 의미는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뒤에도 민중은 여전히 가난과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었고, 왕정이 복구되면서 시대의 변화는 가로막혔다. 위고는 이러한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법과 권력이 가하는 폭력에 희생되는 이들의 삶을 그려내는 동시에 이를 어떻게 돌파해나가야 하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원작의 첫 대목은 미리엘 주교의 이야기부터 시작된다. 75세의 미리엘 신부가 디뉴의 주교로 임명되면서 그는 크고 장엄한 그의 사택을 비좁은 옆 병원과 맞바꾼다. 병자들을 보다 많이 수용하기 위한 그의 결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주교의 수입 거의 대부분을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나누어준다.

도망자 장발장이 금 촛대를 훔쳐 나갔다가 붙잡혀 끌려왔을 때, 그건 자신이 준 선물이라며 촛대 하나를 더 주는 장면은 미리엘 주교의 인품이 감동적으로 극화되는 대목이다.

오늘날 노트르담 성당 안에 들어가면 보물전시장이 따로 있다. 거기에서는 금 촛대를 비롯해서 왕들이 들었던 금 십자가 등을 볼 수 있다. 지금은 일종의 문화유산이 되었지만 당대의 현실에 이러한 보물들의 뒤에는 무수한 이들의 고통과 빈곤이 존재했다. 위고가 미리엘 주교로 하여금 장발장에게 주도록 한 금 촛대는 바로 이런 현실을 '벗겨냈던' 것이다.

루이 14세가 세운 베르사유 궁전의 한 건물에는 '프랑스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글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다. 프랑스 혁명 뒤에 기록된 글이다. 더는 권력자가 아니라 공화정을 통해 수립된 프랑스 전체를 위해서라는 의미다. 비참한 지경에 빠진 이들의 삶이 더는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화정 혁명의 근본 정신이다.

영화의 마지막에는 혁명의 좌절 앞에서도 "저들이 부르는 노래 그대는 듣고 있는가?"라는 대사가 울려퍼진다. 어두운 시대의 사슬을 푸는 일은 과거의 일만이 아니다.

metro entertainment

star bag

자작곡으로 음원차트 올킬

박명수가 MBC '무한도전' 박명수의 어떤가요'에서 선보인 자작곡으로 음원차트를 올킬했다.

5일 정식 발매된 박명수의 자작곡 중 정형돈의 '강북 멋쟁이'를 필두로 유재석의 '메뚜기 월드'와 하하의 '섹시 보이'가 각종 음원차트 1~3위를 차지하며 이변을 일으켰다. 한편 소녀시대 4집 타이틀곡 '아이 갓 어 보이'는 5위권으로 물러났다.

'V콘서트' 개최 — 강남 마비

그룹 **소녀시대**가 색다른 공연을 마비시켰다.

소속사는 6일 "5일 서울 강남역 사거리 엠스테이지에서 3차원 홀로그램으로 구성된 '소녀시대 V 콘서트'가 열렸다"면서 "실제 멤버들이 공연하는 것처럼 현실감 넘치는 영상으로 인해 현장에 모인 시민들이 감탄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 직후 멤버들은 관객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중국서 청춘 에너지상 수상

배우 **이현우**가 4일 '2013 긍정에너지의 밤'에서 청춘 에너지상을 수상했다.

중국 최대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인 가에닷컴이 주최하고 질리안 청·우자룽·중리티 등 유명 연예인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 그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되겠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현우는 현재 김수현과 함께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촬영 중이다.

고베서 일본 투어 스타트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고베에서 새해 첫 일본 투어의 화려한 막을 올린다.

김현중은 6일 오후 5시 일본 고베월드 기념홀에서 진행되는 제펜 투어 '2013 언리미티드'의 첫 번째 무대를 위해 5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고베를 시작으로 사이타마·나고야·후쿠오카 등 일본 각 도시를 돌며 공연한다.

카라가 오프닝곡 '판도라'로 도쿄돔 입성을 알렸다

1회 공연에 매출 100억! 여성 아이돌 신화 쏘다

도쿄돔 단독 콘서트 카라

신한류 선두 주자 카라가 한국 여성 가수로는 최초로 일본 도쿄돔 무대를 밟았다. 6일 열린 '카라시아 2013 해피 뉴 이어 인 도쿄돔'에는 일본에서 숱한 기록을 쏟아냈던 이들의 2년5개월간의 활약상이 모두 펼쳐졌다.

4만5000명 '엉덩이 춤' 들썩

장내가 암전되고 지난해 8월 국내에서 발표한 '판도라'를 부르며 카라가 등장하자 4만5000여 관객은 폭풍을 일으키듯 함성과 함께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일본 최대 실내 공연장에 우뚝 선 이들은 위용을 과시하듯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랑받은 메가 히트곡들로 레퍼토리를 채웠다. 오리콘 차트 사상 해외 여성그룹 최초의 1위 곡 '제트코스터 러브'를 비롯해 '스피드 업' '걸스 파워' '렛미 고' '고고 서머' 등 4개의 오리콘 2위 곡을 선곡해 거대한 합창을 끌어냈다.

시간을 거슬러가듯 최신 히트곡들로부터 데뷔곡까지 차례대로 무대를 선사했다. '프리티 걸' '스텝' '허니' '록 유' 등 국내 히트곡들까지 한국어로 따라 불렀으며 '엉덩이 춤'으로 카라 신드롬을 일으킨 '미스터'는 이날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하며 도쿄돔 전체를 들썩이게 했다.

쟁쟁 커버해 부른 솔로 무대에는 다섯 가지 개성이 다채롭게 묻어났다. 다섯 멤버는 골반을 자유자재로 돌리는 섹시한 안무로 남성 관객의 탄성을 자아내는가 하면 때로는 깜찍한 미소와 애교로 마음을 녹였다.

신비주의 아이돌이 아닌 친구처럼 자유분방하고 소탈한 매력을 앞세웠다. 카트를 타고 객석 구석구석을 이동하며 관객과 적극적으로 교감했다.

"현지서 최고·최초 수식어 계속 올핸 유럽 등 세계로 날고 싶어"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지영, 니콜, 규리, 승연, 하라(왼쪽부터)

일본 데뷔 2년 5개월의 기록

2010년 8월 '미스터'로 일본에 데뷔한 카라는 2년5개월간 현지음악 시장에 끊임없이 신기록을 양산했다.

데뷔곡이 아시아 여성 아티스트 최초 오리콘 톱 10(5위)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제트코스터 러브'로 해외 여성 아티스트 최초 오리콘 주간차트 1위, 1990년대 이후 일본 노래방 애창곡 1위, 지난해 첫 일본 투어 전석 매진 등의 기록을 세웠다.

이어 이번 도쿄돔 4만5000장의 티켓을 예매 시작 5분 만에 모두 매진시키며 기록의 정점을 찍었다.

공연 티켓 매출만 43억원(약 4억 엔)에 이르며 공연장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 매출은 이를 넘는다. 이날 한 회 공연으로 벌어들이는 매출은 100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콘서트 소감과 목표는

규리(25)·승연(25)·니콜(22)·하라(22)·지영(19) 등 다섯 멤버는 공연 1시간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쿄돔 무대를 밟는 벅찬 심경을 밝혔다.

규리는 "일본에 와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 차트 순위 등 '최초' '최고'와 같은 수식어를 많이 들어 부끄럽기도 하고 책임감도 생긴다"며 "우리가 진짜 잘나서가 아니라 팬들이 많은 사랑을 주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더 멋있는 그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K-팝 합동공연에 참여하며 한 차례 도쿄돔에 서봤던 이들은 "당시에도 큰 규모에 놀라고 숨이 멎는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단독 콘서트라 굉장히 긴장이 된다"고 떨리는 마음을 전했다.

최근 싸이가 K-팝 대표 가수로 급부상한 가운데서도 카라는 일본에서 최고 인기 한국 가수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니콜은 "일본 친구들이 싸이 선배님에 대해 많이 물어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우선은 한국과 일본 활동에 전념하지만 우리도 언제든지 기회가 온다면 다른 지역에 진출하고 싶다. 특히 유럽 팬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하라는 "일본 데뷔 당시 목표가 NHK '홍백가합전' 출연과 도쿄돔 단독 콘서트였는데 빠른 시간에 모두 이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제 도쿄돔 2회 공연도 가능한 팀이 됐으면 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겠다"고 새해 목표를 전했다.

/도쿄=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새해 극장가는 꽃중년 시대

톰 크루즈·김윤석 등 국내외 40~50대 인기배우 출연 영화 봇물

국내외 인기 미중년 배우들이 새해 극장가를 뜨겁게 달군다.

박신양(45)은 9일 개봉될 '박수건달'로 생애 첫 코믹 연기를 선보인다. 신내림을 받은 건달 광호로 나와 간드러지는 목소리에 꽃은 아이라인 화장을 불사하는 등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한다.

톰 크루즈(51)와 이완 맥그리거(42)는 17일 공개될 '잭 리처'와 '더 임파서블'로 맞대결을 펼친다. 크루즈는 전직 특수부대원 잭 리처 역을 맡아 오십대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강렬한 액션을 소화하고, 맥그리거는 태국 쓰나미에 휩쓸려 뿔뿔이 흩어진 가족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가장으로 눈물샘을 자극한다.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까지는 국내 연기자들이 차례로 스크린에 나선다.

류승룡(43)과 한석규(49)는 24일과 31일 개봉될 '7번방의 선물'과 '베를린'에서 여섯 살 지능의 아버지와 국가정보원 요원을 연기한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도둑들'의 1000만 관객 흥행 신화를 주도한 김윤석(45)과 이정재(40)는 2월 7일과 21일 공개될 '남쪽으로 튀어'와 '신세계'에서 철없는 무정부주의자와 범죄 조직에 잠입한 비밀 경찰을 각각 연기한다. 이 밖에 크루즈와 동갑내기인 최민식과 황정민(43)도 '신세계'에서 이정재와 삼각편대를 이룬다.

한 영화 홍보 관계자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남자 배우들에게 40~50대는 연기력과 스타성이 무르익는 시기"라며 "흥행 보증수표나 다름없는 이들의 이름값을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분석했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wind8686@naver.com

Jun. K 이창민 규현 등 달타냥 캐스팅

더 화려해진 뮤지컬 '삼총사'

국내 대표 스테디셀러 뮤지컬로 자리 잡은 '삼총사'가 올해 화려한 라인업을 공개했다.

뮤지컬에 첫 도전장을 내민 아이돌그룹 2PM 멤버 Jun. K를 비롯해 흥행 보증수표로 떠오르고 있는 2AM의 이창민, 슈퍼주니어의 규현, 혜성처럼 나타난 신예 박진우, 초연부터 함께해온 엄기준이 5인 5색의 달타냥을 빚낸다.

뮤지컬의 전설 남경주가 신성우·이건명과 함께 아토스 역을 맡고, 김민종이 민영기·손준호와 아라미스로 분해 생애 첫 뮤지컬 무대에 오른다. 프르토스 역은 뮤지컬 배우 김법래와 조순창이 열연한다.

달타냥의 첫사랑인 콘스탄스 역에는 원더걸스의 실력파 보컬 예은과 MBC '위대한 탄생 3'의 멘토 김소현, 폭발적 가창력의 소유자 제이민이 합류한다.

알렉상드르 뒤마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삼총사'는 17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왕실 총사가 되기를 꿈꾸는 청년 달타냥과 프랑스 왕의 친위부대 삼총사인 아토스·포르토스·아라미스의 모험과 우정을 박진감 넘치게 그렸다. 2009년 초연부터 매년 공연 예매 랭킹 1위에 오르며 16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다.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캐스팅과 웅장함을 뽐낼 올해 무대는 다음달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린다. 1차 티켓박스는 11일 오픈한다. 문의 02)764-7857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이장우·오연서 열애설 후 시청률 희비

'오자룡' 웃고 '우결'은 울고

이장우·오연서의 열애설 효과로 '오자룡'은 웃고 '우결'은 울었다.

두 사람이 함께 출연 중인 MBC 일일극 '오자룡이 간다'는 3일 열애설이 보도된 직후 시청률 12.5%(AGB 닐슨미디어리서치)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행불러 이준과 오연서가 가상 부부로 출연 중인 '우리 결혼했어요'는 진정성 논란에 휩싸이며 5일 방송에서 8.2%를 기록, 지난주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앞서 '우결' 제작진 측은 "오연서 본인을 만나 확인한 결과 스캔들은 사실 무근이었다. 이준·오연서 커플 출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이들의 하차설을 일축했다.

오연서 측 역시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열애설 보도 초반에 소속사가 이장우와의 열애설을 인정했다는 것은 잘못 전달된 부분이다. 친한 선후배 사이일 뿐"이라면서 "이 일로 5월까지 드라마 촬영을 함께해야 하는 두 사람 사이가 멀어질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김보람기자 kwon@

블락비·소속사 전속계약 공방…누가 맞나

7인조 아이돌 그룹 블락비가 4일 소속사 스타덤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블락비 측은 "소속사가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수입 정산도 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한 데다, 대표는 가수 부모들에게 7000만원을 받아 챙겨 잠적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스타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4월 데뷔 후 같은 해 10월까지 6개월간 단 한 건의 수익도 발생하지 않아 정산이 불가능했던 것뿐"이라면서 "가수 부모들에게 7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도 대표이사를 사칭한 매니저가 저지른 일이다. 이를 사건화할 경우 블락비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어 법적 절차 진행을 보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블락비는 2011년 싱글앨범 '두유 워너 비'로 데뷔했으며, 지난해 초 태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과 관련해 자숙기간을 갖고 있다. /김보람기자

'소속사 분쟁' 강지환 '돈의 화신' 출연 확정

소속사 분쟁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강지환이 SBS 새 주말극 '돈의 화신'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SBS는 4일 "강지환이 '돈의 화신'에서 사채업자의 돈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오른 남자 이차돈 역을 맡았다"면서 "캐릭터의 냉철한 면과 내적 갈등을 표현할 배우로 강지환이 가장 적합했다"고 캐스팅 배경을 밝혔다.

'지이언트'의 장영철·정경순 부부 작가와 유인식 PD가 손잡은 이 작품은 '청담동 앨리스' 후속으로 다음달 2일 첫 방송된다. /김보람기자

조성민 마저…'자살 쇼크'

욕실서 목매 숨진 채 발견…두산 재계약 문제·경제적 어려움 등 겪어

고 최진실의 전 남편이자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성민(40)이 6일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조성민은 이날 오전 5시26분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화장실 샤워꼭지에 허리띠로 목을 맨 채 여자친구 A씨에 의해 발견됐다. 이 아파트는 A씨가 월세로 거주하는 곳이다.

경찰은 외부 침입이나 타살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데다 조성민이 사망 전날 A씨와 술을 마시다 이별을 통보받았고, 주변에 문자 등으로 죽음을 암시하는 글을 남긴 점으로 미뤄 자살에 무게를 싣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조성민은 오전 6시11분 어머니에게 "한국에서 살 곳이 없네요. 아들 없는 셈 치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6시16분 A씨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 그동안 고마웠다. 꿋꿋이 잘 살아라"고 보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최진실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자녀 한의 눈에 남매에겐 크리스마스와 새해에 "추울 때 따뜻하게 입어라"는 말이 마지막인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조성민의 모친은 오한 끝에 실신해 응급실로 실려갔으며, 최진실의 사망 후 손주들을 도맡아 키우던 남매의 외할머니 정씨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그의 굴곡 많았던 인생

조성민은 평소에 비극적인 가정사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뛰었던 그는 폭행과 외도 논란 속에 최진실과 파경을 맞았고, 최진실은 2008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어 큰 충격을 줬다. 두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문제로 유족과 때때로 심하게 갈등을 빚다 아이들의 외할머니에게 모든 권리를 넘겼다. 이후 방송에서 "자살을 생각했다"고 고백하는 등 당시 큰 심적 고통을 겪었다.

일적으로도 굴곡이 많았다. 젊은 현역 생활을 마치고 해설가와 사업가에 도전했고, 2005년엔 한화에 입단하며 야구선수로서 재기를 노렸으나 연이어 좌절을 맛봤다.

지난해 두산 베어스에서 2군 코치로 새출발했으나 지난달 조 재계약을 포기했다. 그즈음 도곡동의 한 일본식 선술집에서 폭행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조성민의 전 에이전트 손더가 씨는 "평소 우울증 증세는 없었다"고 밝혔다.

빈소는 모교인 고대 안암병원에 마련됐으며 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신이 부검될 예정이다.

/박찬하기자 ssh0427@metroseoul.co.kr

스타A '관물대 여친앓이'

연예가 소곤소곤

▶휴가 못지않아 사진으로 만족

스타 군인의 복무 중 이성 교제기 연애기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군 생활 중인 스타 A도 여성 연예인 B와 교제 중이라는 소문이 돌아 이들의 관계에 관심이 쏠립니다. A의 관물대에는 B의 사진이 붙여져 있고 그 사진에는 '내 사람'이라는 A를 향한 B의 메시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A는 같은 내무반 선후임 장병들에게 이를 자랑하기도 해, 둘의 사랑은 부대 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A는 모범 장병으로 소문났지만 자주 휴가니 외박을 나가지도 못하고 B의 사진만 바라보며 힘든 군 생활에서 위안을 얻고 있다는데요. 씨 김태희 커플을 바라보는 A와 B의 심정은 누구보다 착잡할 듯합니다.

▶못생긴 개그맨 C, 미녀에 인기

역시 미녀는 개그맨을 좋아하나 봅니다. 한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C의 연애기 실 몸이 벌다고 합니다. 지난해 여름 미모의 여자친구와의 열애가 알려져 화제를 모은 그는 그 직후 공개에 대한 부담 탓에 안타깝게 이별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별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인 그해 가을부터 다른 사람과 교제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는 개그맨 중에서도 유난히 연줄이 달리는 편인데요. 유머 감각과 편안함으로 여자들을 확 사로잡는다는 후문입니다.

▶라이징 스타 D 연기자 데뷔된 듯

라이징 스타 D의 연기 도전 전망이 밝은 듯합니다. D는 평소 언행이나 태도가 예의 바르지 못해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빈축을 사기도 했지만, 독특한 매력 때문에 탄탄한 지지층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모 작품의 원작 작가 역시 "D가 하는 것이다 예뻐 죽겠다"며 공공연하게 관심을 자처하는 등 특히 방송 작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D가 연기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욕심을 숨기지 않았던 만큼 올해는 그의 연기 데뷔작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배두나 "박지성과 연애 글 속상"

할리우드 진출작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개봉을 앞두고 있는 배두나가 지난해 불거졌던 축구스타 박지성과의 교제설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배두나는 "분명히 말하지만 '지성 씨'와 사귄다는 내용의 소문은 사실 무근"이라 잘라 말한 뒤 "몇 년 전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알게 된 뒤 '클라우드 ○○' 촬영을 마치고 잠시 머물던 영국 런던에서 만나 (박지성에) 지하철을 타본 적이 없다길래 함께 탔을 뿐"이라고 당시의 상황을 공개했는데요. 이어 "함께 걸어가는 사진이 공개되고 나서 매우 유쾌하지 못한 대중의 반응이 전해졌다. 일일이 밝힐 순 없지만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읽고 정말 속상했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절벽·해변 어우러진 '쉼표 파라다이스'

수백미터 치솟은 기암괴석 클라이밍 아찔··섬과 섬 사이 카약투어도 짜릿

태국의 끄라비(Krabi)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간직돼 있는 곳으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여행자들에게 호평을 받는 곳이다.

파타야, 사무이, 푸켓에 비하면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카르스트 지형의 해안에는 7500만 년 전에 만들어진 조개 화석층으로 인해 수백 미터까지 치솟은 기암괴석이 즐비하다. 인근에 두 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진 피피섬과 일명 치킨 아일랜드로 불리는 코까이 섬 4개의 해양국립공원이 있다. 예전에는 스노클링과 다이빙, 바다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만 찾아오던 소박한 어촌이었지만 지금은 석회암 절벽과 어우러진 이국적인 해변을 만끽하기 위해 각국의 여행자들이 모여든다.

태국 남부의 대표 휴양지인 아오낭은 끄라비에서도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다. 약 1km 길이의 길게 뻗은 해변을 따라 해안도로와 산책로가 있으며 여행자들의 편의시설도 몰려 있다.

아오낭의 주요 여행사에서는 각종 투어 상품을 판매하는데 투어를 하려면 최소한 하루 전날에 예약을 해야 한다. 끄라비 인근의 섬들과 해변을 들러 카약과 스노클링, 수영을 즐기는 상품은 뷔페식 점심식사도 제공돼 추천할 만하다. 라이레는 태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암벽 등반 장소다. 라이레의 리조트나 해변 근처에 자리한 클라이밍 사무실에서는 초보자를 위한 암벽 등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끄라비 타운에 있는 백화점과 주변 노점 식당에서는 싱싱한 해산물과 다양한 토속 음식을 맛볼 수 있다. 특히 매주 금~일요일에 열리는 주말 시장에서는 다양한 먹을거리는 물론 수공예품과 공연을 볼 수 있어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오후 5~10시까지 운영한다.

한편 끄라비 여행은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가 성수기다. 이때는 비가 거의 오지 않고 바다도 맑아 휴양이나 각종 해양 스포츠를 즐기기에 최적의 조건을 선보인다. 5월부터 시작되는 우기는 10월 말 즈음에 끝난다.

/끄라비(태국)=글·사진 이용화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끄라비로 가는 방법은 한국에서 직항은 없고 방콕을 경유해 항공이나 육로로 이동하면 된다. 타이항공과 에어아시아가 매일 3회 방콕~끄라비 구간을 운항하며 소요 시간은 편도 1시간20분이다. 버스로는 12시간 정도 걸리는데 방콕 버스터미널에서 24석의 999 VIP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여행 정보는 태국관광청(visitthailand.or.kr)에서 얻을 수 있다.

타파웨어 냉장기세트 출시

타파웨어 브랜즈가 디자인과 구성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냉장기 플라워 세트(10pcs)'를 출시했다.

타파웨어의 냉장 전용 시리즈에 화사한 색감을 더한 것으로, 옐로·오렌지·그린·블루의 4가지 컬러를 입혔다. 기존의 주니어·미디엄·큰 냉장기 세트에 2ℓ 용량의 큰 냉장기 2개를 추가해 실용성과 제품 구성의 다양성을 높였다. 반찬 보관용으로 쓰임새가 많은 작은 용량의 주니어 냉장기는 기존 3개 구성에 1개를 더 추가했다. 문의: www.tupperware.co.kr·080-023-8811

원하는 문구·디자인등 인쇄 국순당 고객맞춤 선물세트

국순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포장에 고객이 원하는 문구나 디자인을 추가해주는 '고객 맞춤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해당 제품의 포장에 인사 문언이나 업체명, 로고 등을 넣어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해 전달할 수 있는 선물세트다. 국순당의 명절 인기 선물세트인 '프리미엄 자양강장 선물세트'와 '명작 선물세트' 등 총 8개 품목에 적용된다.

2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고객 맞춤 선물세트를 신청해도 추가 비용은 없다. 추가할 문안이나 로고 디자인은 해당업체에서 제공해야 한다. 문의: www.ksdb.co.kr

하와이 여행권 크게 쏩니다

'웅진플레이도시' 이벤트

실내테마파크 웅진플레이도시가 3주년을 기념해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음달 17일까지 웅진플레이도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playdoci.com)를 통해 경품 대잔치에 참여하는 고객 중 총 3333명에게 하와이 커플 여행권, 삼성 스마트 TV 등을 선물한다. 또 다음달 11일까지 현장 권지 고객을 대상으로 스탬프 스티커를 증정, 개수에 따라 워터파크&스파, 스키&보드, 눈썰매 50% 할인 또는 무료 혜택을 준다. 현장 매표소에서 워터도시 이용권을 3인 이상 동시에 발권하는 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는 3주년 기념 텀블러를 제공한다.

고객 우대 행사도 다양하다. 이달 말까지 범띠 고객은 40% 할인해주고, 여대생 3명 동시 입장 시 워터파크&스파 혹은 스키&보드를 3만3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파격 행사를 벌인다. 문의: 1577-5773

평창 응원하면 행운이 펑펑

휘닉스파크·메트로신문 휘팍에서 2018 준비하라

휘닉스파크가 메트로신문과 함께 '휘팍에서 2018 영광의 순간을 준비하라' 이벤트를 다음달 25일까지 실시한다.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 메시지와 설원에서 찍은 커플사진을 올린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휘닉스파크 리프트권(1인 2매)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응모 기간 중 수시로 발표하며 총 30명을 선발한다. 이번주에 뽑힌 사연을 소개한다.

◆당첨 사연1- "몇 해 전 와이프와 처음으로 찾은 휘닉스파크. 그동안 아이 키우느라 잠시 쉬었지만 올해부터 다시 보드에 도전하려고요. 여보! 보드 타면서 육아 스트레스 날려버리자~ 고마워! 그리고 2018년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ID [illegible]

◆당첨 사연2- "어릴 적 썰매를 타며 마냥 신나했던 우리 형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됐네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현장에서 생생하게 지켜보려고요. 우리 둘째 파이팅! 평창 동계올림픽 파이팅!" ID [illegible]

스키어·보더의 천국 '휘팍'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에 위치한 휘닉스파크는 스키·보드 등 동계스포츠를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다. 총 23면의 슬로프 중 12면의 FIS 공인 슬로프를 비롯해 광활한 스키 베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스키어와 보더를 위한 하프파이프, 난이도별 점프대와 레일 등이 설치된 익스트림 파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렌탈용 보드 장비를 '버튼'의 최신 데크로 교체했고, 지방 무료 셔틀버스를 구미·청주·대전·대구·부산 등으로 확대 운영해 더욱 편하게 스키와 보드를 즐길 수 있다. 문의: 1588-2828

만성위장병 앓는 당신…혹시 담적병?

스트레스 등 유발—위장 굳어지고 전신질환까지

위담한방병원 "원인 못찾는 중증 위장병 다수 의심"

위암은 우리나라 장기 암 중 발병률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그러나 위암의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의 중증 증상과 함께 몸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이상 증상을 느껴도 내시경으로 발견할 수 없다며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최소한 만성 위장병을 앓아왔고, 두세 가지 이상의 다른 질병들을 앓고 있다면 담적이라는 중증 위장병이자 전신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위담한방병원 최서형 대표원장은 "위암이 되기 직전의 원인을 못찾는 중증 위장병의 상당수는 위벽 속에 독소가 쌓여 생긴 담적을 치료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과로, 술, 폭식, 담배 등으로 인해 위기 방가지면 위 점막이 훼손돼 노폐물이 쌓이고, 쌓인 노폐물은 다시 독소로 변해 위장을 굳게(경화) 만든다.

그런데 이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독소(담)가 위장 벽 곳곳에 스며들어 각종 위장병을 일으킨다.

게다가 내버려두면 악성으로 변할 확률이 높다. 위장의 독소가 혈관, 림프를 타고 전신으로까지 퍼지면 혈관질환, 내시질환, 피부질환, 우울증 등의 전신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최 원장의 설명이다.

담적병 치료는 담 독소를 제거하고 경화된 위장을 녹이는 담분해 발효한약과 온열 고주파 요법을 적용한다.

담분해 발효한약 요법은 위장과 소장에 낀 담 독소를 분해하고, 경화된 장기를 녹이도록 열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또 위장에 혈액 공급을 강화해 위장 근력을 강화하고, 점막을 보호하며 점막을 보충하는 것을 돕는다.

만성 환자의 경우 하복에 고주파 열을 투과, 담적의 굳어진 조직을 녹인다. 최 원장은 "위암 조기 증상과 비슷한 담적 증상이 있다면 위암과 같은 중병이 되기 전에 조기에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병석기자

담적병 진단 체크리스트

- □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하다
- □ 머리가 자주 아프다
- □ 눈이 침침하다
- □ 건망증이 심해졌다
- □ 뒷목이 뻣뻣하다
- □ 항상 피곤하다
- □ 여성의 경우 냉, 염증이 자주 발생한다
- □ 속이 메스껍다
- □ 대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다
- □ 어지럽다
- □ 눈 주위가 뻑뻑하고 통증이 있다
- □ 얼굴색이 누렇고 검어지거나 기미가 낀다
- □ 어깨에 담이 걸린다
- □ 구취(입냄새)가 심하다
- □ 잘 체한다

(5개 이상에 해당되면 담적병 의심)

손톱 흰색 띠면 만성간염일수도

이대목동병원 '병이 보내는 증상표' 발표

이대목동병원여성건강검진센터·건강증진센터가 각 질환별 증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병이 보내는 증상표'를 발표했다. 표는 눈, 손톱, 안색, 가래 등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증상들을 이미지를 통해 보여준다.

이대목동병원 김정숙 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 소장은 "증상에 따라 다양한 질환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상표를 참고하되 증상이 발견됐을 때 전문의를 찾아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소 정기적인 검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눈

한쪽 눈에만 시야 장애가 생긴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 눈자위가 노란색을 띨 경우 간질환이나 담도질환을 의심해볼 수 있다. 눈의 수정체가 흐려져 눈동자 속이 하게 보이는 증상은 후천적 백내장일 경우 나타날 수 있다.

가래

회거나 분홍색 거품의 가래가 나오면 폐부종이나 심장병일 가능성이 있다. 가래의 색이 진한 황갈색이나 검은색이면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암, 폐결핵 등을 의심해볼 수 있다. 무색 투명한 가래가 생길 경우 급성기관지염이나 천식일 가능성이 있다.

손톱

손톱이 흰색이라면 만성 간염이나 영양결핍, 노란색을 띠면 황달이나 폐질환일 가능성이 높다. 진균증과 같은 곰팡이 감염일 경우에는 손톱이 검은색을 띨 수 있다.

안색

피부가 창백하면 빈혈일 가능성이 높다. 체함, 폐암, 천식 등 폐 기능이 저하될 경우에도 안색이 창백해질 수 있다. 간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담도질환이 있으면 황달과 같이 안색이 노란색을 띨 수 있고 평소와 다르게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에는 혈액순환 장애를 의심해볼 수 있다.

소변

소변에 피가 섞여서 나올 경우 요로나 전립선 염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평소 보다 소변에 거품이 많은 경우에는 당뇨로 인한 신장 합병증일 가능성이 있다.

대변

대변이 초록색일 경우에는 식중독이나 급성 위염일 가능성이 높다. 또 대변이 검은색이면 위출혈을 의심해봐야 한다. 대변에 붉은 피가 섞여서 나오면 대장암으로 인한 출혈이나 항문근처의 치질 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김민지기자

안약으로 예방접종 받는 시대 열리나

국가과제 지정—상용화 추진

안약으로 감염병 예방접종을 대신하는 기술이 국가 과제로 지정돼 상용화가 추진된다.

기존 주사제 형태의 장티푸스 백신을 안약 형태로 개발하는 '장관계 감염 병원체에 대한 점안형 백신 개발' 프로젝트가 보건복지부 연구과제로 선정돼 향후 5년간 34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안약 방식의 예방접종은 무엇보다 안약처럼 사용이 쉬우면서도 안전하게 대량으로 수송할 수 있고, 반복 접종이 가능한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또 주사와 달리 통증이 없어 아이들의 거부감이 덜하다는 이점도 있다. 특히 신종플루처럼 대규모 집단 면역이 필요한 경우 상당 시간이 필요한 주사제와 달리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대단위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연구팀은 보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안과 서경률 교수팀은 "점안백신은 눈에 가려움증이나 염증 등의 부작용이 없고, 뇌에도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차세대 예방접종법으로 상용화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 한국화이자 새 패키지 출시

한국화이자제약이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의 작은 제형과 새로운 패키지를 출시했다.

리피토 작은 제형은 기존 제제의 절반 정도의 크기로 길이, 넓이, 두께 등 모든 면에서 크기가 줄어들었다. 모양도 기존의 가로로 길쭉한 타원형 제제에서 둥그런 모양으로 변화됐다. 리피토의 기존 용량인 10mg, 20mg, 40mg, 80mg 모두에 적용된다.

210.77점! 피겨 진수 뽐냈다

김연아 세계선수권 티켓 획득 … "국내 팬들에 좋은 무대 선봬 기뻐"

'피겨 여왕' 김연아(23)가 7년 만의 종합선수권대회에서 가볍게 정상에 올랐다.

김연아는 6일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끝난 제67회 전국남녀피겨스케이팅종합선수권대회 시니어 여자 싱글에서 종합 210.77점으로 우승했다.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64.97점을 받아 선두를 달렸던 그는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0.79점과 예술점수(PCS) 75.01점, 합계 145.80점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달 NRW트로피 대회(201.61점)에 이어 연달아 200점을 넘겼고, 2013년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도 손에 쥐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4000여 관중의 열렬한 응원 속에 경기장에 들어선 김연아는 레미제라블 곡에 맞춰 첫 과제인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가볍게 성공했다. 이어진 트리플 플립에서도 가산점을 챙겨 기분 좋게 출발했다.

경기 시간 절반이 지나 10%의 가산점이 붙는 구간에서 트리플 러츠와 더블 악셀-더블 토루프-더블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까지 성공해 가산점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달 대회에서 엉덩방아를 찧은 트리플 살코-더블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서도 깔끔한 착지로 가산점을 받았다. 또 레벨 1에 그친 마지막 체인지풋 콤비네이션 스핀에서 레벨 4를 받아내며 복귀전의 아쉬움을 모두 날려버렸다.

경기 후 김연아는 "쇼프에서 64점대에 그쳐 200점은 어렵다고 생각해 점수 욕심을 내기보다는 할 것을 잘하자는 생각으로 경기했다. 마지막에 뭘 국내 대회에서 팬들 앞에 좋은 연기를 보인 것 같아 기쁘다"며 "준비한 것을 다 해낸다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도 무리없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연아의 다음 발걸음은 3월 캐나다 런던에서 열리는 2013년 세계선수권대회로 향한다.

이에 따라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는 2011년 모스크바 세계선수권대회 이후 2년 만에 맞붙게 됐다. 아사다 마오는 지난해 일본선수권대회 우승 자격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 참여한다.

한편 박소연(강일중)이 161.88점으로 준우승했고, 최다빈(강일중)이 153.09점으로 뒤를 이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여왕의 품격
피겨 여왕 김연아가 6일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전국남녀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 여자 프리스케이팅 경기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청용 새해 첫 골 폭발

선덜랜드전 선제골 시즌 5호

'블루 드래곤' 이청용(25·볼턴·사진)이 해외파 새해 첫 골의 주인공이 됐다.

이청용은 6일 열린 선덜랜드와의 잉글랜드 FA컵 64강전에서 전반 12분 페널티아크 오른쪽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뽑았다. 지난달 30일 버밍엄과의 챔피언십 경기 후 2경기 만에 득점포로 챔피언십 4골을 더해 이번 시즌 득점을 5호로 늘렸다. 볼턴은 선덜랜드와 2-2로 비겼다.

골닷컴은 이청용에 대해 "침착한 경기 운영으로 기회를 살려냈다"고 평가하며 평점 3을 부여했다.

김보경(카디프시티)은 메이든스헤드와의 64강전 출전명단에서 제외됐고, 팀은 1-2로 게 덜미했다.

/김민준기자

10구단 신청 오늘 마감

프로야구 10구단 신청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0구단 회원 가입 신청서를 7일 오후 5시까지 받는다.

경기도 수원시를 연고로 한 통신 기업 KT와 전라북도 일원을 축으로 삼은 부영그룹은 이날 각각 신청서를 제출한다.

KBO는 외부 인사 20명 안팎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가동해 철저한 심사를 할 계획이다.

KT는 서울과 가까운 수원을 연고로 흥행 동원에서 앞선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고, 부영은 수도권에만 5개 구단이 몰리면 프로야구 균형 발전에 저해된다며 KT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민준기자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6 What's your name?
자기 소개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샘플입니다.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당신의 이름은 뭔가요?
당신의 이름은 철자를 어떻게 쓰나요?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스펜서입니다
이분은 마이어스 씨입니다
당신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What's your name?
How do you spell your first name?
His name is David Spencer
This is Mr. Meyers
Very nice to meet you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이분은 is Mr. Meyers. He is my boss.
B How are you doing, Mr. Meyers?

정답 This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What's his first / last name?

2 How do you spell your last / first name?

TOEIC ▶ ETS TOEIC Starter Reading

토익에 자주 나오는 명사 어휘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관련표현과 함께 익혀 두세요.

furniture	명 가구	a piece of furniture 가구 한 점
look	명 외관, 모양 동 보다, 보이다	take[have] a look at ~을 보다
management	명 관리, 운영 manage 동 관리하다	time management 시간 관리
means	명 수단, 방법 mean 동 의미하다	every means possible 가능한 모든 수단
participant	명 참가자 participate 동 참여하다	an active participant 적극적인 참가자
performance	명 공연, 연주, 수행 perform 동 수행하다, 공연하다	musical performance 음악 공연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Basic

Part 4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7번 문제 유형 파악하기

• When 의문문 공략 "~은 언제 열리나요?"

When 의문문의 답변 포인트는 '언제'에 해당하는 날짜이다. 일정은 마지막 지문의 시작 부분 혹은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When 의문문의 질문 내용과 답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정확히 전치사를 사용하여 올바른 날짜 및 요일 정보를 전달하는 연습을 해보자.

Q **When** will the meeting **be held**? 회의는 언제 열리나요?
답변 포인트 / 질문의 내용

A It will be held **on Tuesday, October 13th**. 그것은 10월 13일 화요일에 열립니다.
핵심 답변

질문에서 When을 듣고 차트에서 when과 관련된 정보를 빠르게 찾는다. 차트에서 '언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Tuesday October 13th이다. 이것을 완전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답변하기 위해서는 '개최되다'의 동사 표현 be held, take place와 날짜의 전치사 on을 잘 활용해야 한다.

ex. It will be held on Tuesday October 13th.
It will take place on Tuesday October 13th. 그것은 10월 13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본 지면은 YBM의 컨텐츠로 구성됐습니다 ybmBooks.com 02)2000-0515

한진중공업 정상화를 위해
시민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한진중공업 임직원 일동은 故 최강서씨가 유명을 달리하신 데 대해 머리숙여 깊은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진중공업 임직원 및 가족 모두는 故 최강서씨가 유명을 달리하신 데 대해 깊은 애도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유가족분들께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 유가족분들과 협의하여 성실 성의껏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사의 위와 같은 진심어린 뜻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인께서 소속되어 있던 금속노조는 회사와 유가족분들과의 만남조차 막고 있고, 외부세력을 끌어들이는 등 유가족분들의 슬픔과 고통이 가중될까봐 저희 임직원 모두는 이 점을 심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희망버스 등 외부세력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수주계약이 무산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또다시 외부세력이 합세하여 사태가 악화된다면 생존을 위한 미약한 불씨를 살리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영도조선소가 또다시 소요에 휩싸여 행여나 세계유수의 선주사들로부터 선박발주를 외면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빠른 시일내에 회사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휴업중인 직원 전부가 복귀하여 서로을 아끼며 격려하는 새로운 일터를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故 최강서씨의 영전에 머리 숙여 애도 드립니다.

금속노조의 주장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사실대로 설명드립니다.

첫째, 금속노조에 제기한 158억원 소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속노조가 주장하는 158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은 2010년부터 계속된 불법파업기간 중 건조중인 선박과 시설물 파괴로 회사가 입은 물적 피해와, 선박 건조작업을 못함으로써 선박 인도기일을 지키지 못해 선주에게 배상한 인도지연 손해배상금액 등 직접적인 재산상, 금전적 손해액만을 최소한으로 산출하여 청구한 소송입니다.

또한 2011년 11월 10일, 당시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여 · 야 간사 입회하에 회사와 금속노조간에 체결된 합의서 내용에 따라 조합간부 등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 고소, 고발건은 모두 취하하여 조합원 개개인에 대한 민, 형사소송은 현재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나와 있는 대로 민, 형사소송을 최소화하여 현재는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둘째, 회사의 순환휴업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는 국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체결된 2011년 11월 10일자 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회사가 정상화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1월 9일자로 해고자 전원을 재취업시켰습니다. 해고자 전원을 재취업시킬 당시 이미 일감이 없어 재직중에 있던 직원들도 순차적으로 휴업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취업된 직원들에 대해서도 휴업이 불가피하였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휴업중인 직원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월평균 22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1,2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2명의 자녀에 대하여 대학졸업시까지 학자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고, 기타 경조비 등을 지급하는 등 휴업중에 있더라도 재직중인 직원들과 똑같이 복리후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필코 회사정상화를 이루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한진중공업에는 노동조합이 2개가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의 대표노조를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로 잘못 알고 계십니다만는 현재 한진중공업의 대표노조는 조합원의 70% 이상이 가입한 '한진중공업노동조합' 입니다.

그러나 전체 조합원의 27%가 소속되어 있는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는 전체 조합원들의 선택에 승복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회사의 잘못으로 왜곡하여 또다시 외부 시위대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어, 지난 2011년 7월 선주와 어렵게 성사단계까지 갔던 수주계약이 무위로 돌아가는 참담함을 경험했던 회사로서는 또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사는 생존을 위한 일감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회사 임직원 모두가 지속적인 수주노력을 펼쳐온 결과 해양지원선 수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한국전력에서 발주 예정인 벌크선 수주전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전임직원이 일감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회사는 기필코 이번 기회를 살려 수주계약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는 불법 천막농성 뿐만 아니라 회사 본관 출입시설을 파괴하고 직원들에게 집단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는 일까지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으며, 선주사 관련 인사는 물론 해군 및 해경의 함정건조를 위해 출근하는 직원들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 영도조선소의 생존과 고용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회사 정상화를 위한 저희 임직원 모두의 몸부림과 일감확보를 위한 소중한 불씨가 지역경제나 회사 정상화에는 터끝 만한 관심도 없는 외부세력의 무분별한 시위 등으로 꺼져가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지원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13년 1월 7일

㈜한진중공업 임직원 및 가족 일동